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부혁신 ‘왕중왕’ 겨룬다

행안부 주관 경진대회 본선 진출 중앙부처·지자체 233개 정책 경쟁 ‘문제 해결하는 정부’ 광역시 유일 민생 해결·사각지대 해소 등 인정

광주시에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본선에 진출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보편적 돌봄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분야 경진대회로, 올해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해 최종 ‘왕중왕’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233개 혁신정책이 도전해 전문가 심사·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15개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 15개 정책은 △광주시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경남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 사업’ △한국 전력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국립농업과학원의 ‘노동력 부족, 로봇이 대체한다’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특히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뽑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 몇 개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돌봄시민 발굴(신청)부터 서비스 지원(연계)까지 전달체계 자체를 혁신해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존 돌봄체계의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관·정·학 협치를 통해 사업을 설계한 과정도 주목받았

다. 행안부는 본선 진출 15개 우수사례에 대해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1월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변화라면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가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는 26종의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시행 1년 만에 1만6000여명의 돌봄시민 발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사회적 돌봄의 책무를 실현하며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기구와 서울,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수목 알리기 ‘박차’

내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서 홍보 전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 연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이 서울 시청 광장에서 16일까지 3일간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수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최에 앞서 수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수목 장르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와 연계 운영한다.

체험 행사는 수목 재료를 이용한 머그컵 만들기와 수목 캐리커처 체험 이벤트

로 구성됐으며, 3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희망하는 누구나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대중이 수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며 “2025년 개최되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새로운 K-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4회를 맞이하는 열리는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오지현 기자



한강 축하 메시지

광주 북구 중흥도서관을 찾은 주민들이 14일 중흥도서관 로비에 마련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축하 코너에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대표소설을 관람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축제 중점관리 대상 지정 민·관 합동 사전 안전점검

광주시는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축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사전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을철은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는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무엇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제9회 광주서창역 새축제’ (10월 17~20일), ‘제31회 광주김치축제’ (10월 18~20일), ‘광주송정 남도 맛 페스티벌’ (10월 19일) 등 광주대표축

제를 앞두고 축제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행사 전에는 광주시·자치구·경찰·소방·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행사 중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대책 이행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때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인파밀집 관리대책 △무대 시설·부스·천막 설치 안전성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등 비상대처계획 △전기·가스·소방 분야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이후호안전정책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축제장 안전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보환연, 대기·악취분석 최우수 인증

국립환경과학원, ‘적합’ 판정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2024년도 대기 및 악취 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숙련도 시험은 국공립 연구기관을 포함한 한국환경공단, 환경 분야 336개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항목별로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한다.

대기 분야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분석을 위한 준

비사항, 시료 채취 숙련도 등 8개 분야 검사능력을 평가한다.

악취 분야는 복합악취와 알데하이드류(4), 휘발성유기화합물(3)을 포함한 지정악취 물질 8개 항목에 대해 시료 채취와 분석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부지원은 전남 동부권 대기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해 측정·분석하고 있으며, 2018년 개칭 이래 7년 연속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 및 악취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최고 기관임을 인증받았다. 오지현 기자

‘흑백요리사’, 광주김치로 ‘푸드쇼’ 펼친다

18~19일 시청 야외음악당서 최현석·여경래 셰프 등 참석

스타 셰프 최현석, 중식의 대가 여경래, 미술쟁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 등 ‘흑백요리사’들이 김치명인들의 김치를 재해석한 ‘김치 푸드쇼’를 선보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31회 광주김치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를 개최한다.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는 광주김치축제 주무대인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18~19일 이틀 간 열린다.

방송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자인 유명셰프 최현석, 여경래, 파브리치오 페라리, 사찰음식 대가인 정관스님이 참여

한다. 이들은 광주김치축제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김치명인들의 김치를 재해석해 새로운 요리를 선사한다.

이번 행사는 한식, 중식, 양식 등 세계적인 요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김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를 세계인의 소울푸드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흑백요리사’에서 묵은지가 요리의 주재료로 지정돼 셰프들이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을 ‘김치는 세계인의 요리에 주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푸드쇼 첫날인 18일 오후 5시에는 ‘흑백요리사’에서 활약한 최현석·여경래 셰프가 김효숙 명인 ‘돌산갓김치’와 장경애 명인 ‘대하배추김치’를 활용해 요리를 한다. 최현석 셰프는 ‘갓김치 간장게장 리조

또’를 30분 만에 만드는 혁신적 요리 기법을 선보일 예정이며, 여경래 셰프는 전통 중식과 해산물 요리를 결합한 ‘대하김치 통새우 고기찜’을 만든다.

푸드쇼 이틀날인 19일 오후 5시에는 정관스님과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가 곁은주 명인 ‘맨드라미 백김치’와 김인숙 명인 ‘홍갓 꽃물갓김치’를 재해석해 정관스님은 ‘맨드라미 백김치 목박’,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는 ‘갓물김치 문어 냉파스타’로 광주명인김치를 변신시킨다.

푸드쇼가 끝나면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관람객들이 맛볼 수 있는 시식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식 티켓은 선착순 50명, 행사장 이벤트 참여자 50명 등 총 100명에 게 당일 현장에서 배부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지원 강화

산모도우미 파견·전문교육 등 추진 11월부터 목포·순천시 인력 교육

전남도가 다문화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지원을 위해 산모도우미를 직접 가정으로 파견하는 등 다문화 출산·복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통계청 자료(2022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다문화 출생아 수는 538명으로, 지역 총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 비율이

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구 수는 1만5666세대(전국의 3.9%·8위), 가구원 수는 5만1131명(전국의 4.4%·7위)으로 전남 인구의 2.8%에 달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생활방식과 문화 등이 달라 출산과 산후조리에서 내국인보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산모의 영양·건강관리 △방 청소와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예방접종 이용 △산모의 요청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인산모도우미가 최대 4주간 출산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산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반응이 뜨겁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비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11월부터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목포와 순천에서 산모도우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YWCA(061-242-1612), 순천YWCA(061-744-79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